

문 대통령 “비핵화 북미합의 돼야 남북관계 풀려”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평화·번영 시대적 소임”
“비핵화·평화구축·남북관계 발전 두 번없는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간 합의 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문단에는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2000년과 2007년 등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

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경험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남북합의 성과가 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그런 경험과 성과가 있었기에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남북관계는 지난 10여년간 파탄난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됐고, 북한 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사일은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만큼 고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날 남북관계는 정부 독단으로 풀어 갈 수 없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풀어 갈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국민과 소통하겠지만, 남북관계에서 누구보다 설득력을 갖고 계신 원로자문위원들께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부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며 “국민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번 정상회

담을 통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좌장 역할을 맡아 주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해 한분 한분이 남북문제 전문가를 넘어서 남북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해서 원로자문단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원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자문위원들 모두가 고견을 들려주시길 기대한다”며 “의제는 전략이든 합의에 담을 내용 이든 또는 규칙이든 뭐든지 말씀해주시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자치단체장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안돼

오는 14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13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또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 개최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6·13지방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연합뉴스



정가브리핑

주승용 “한-네팔 교류협력 발판 마련”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이 지난 10일 네팔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WECC 2018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해 세계각국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주 의원은 연설을 통해 물문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재이용 촉진법을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주 의원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 세계적 물 위기 대응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네팔 의원친선협회장인 주 의원은 난다 키쇼르 폰 네팔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물관리 경험이 네팔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한-네팔간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정현 “공공의대 지역선정 여론수렴 필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12일 “국립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 “그러나 설립지역은 일방적 선정보다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특정지역의 민원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이고 지역균형이 반영된 큰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논의과정 한 번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남대 정원의 전복 잔류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입장과 정부·민주당의 고민이 이해되는 바는 있다”면서 “저는 전남도민들과 함께 전국 유일의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5·18당시 호남인들과 함께 아파하고 분노했다”
이용섭 ‘청와대 근무이력’ 논란 해명하며 ‘눈시울’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몇 차례 울먹였다.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발표 직후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이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명하던 중이었다.

뚜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목을 타고 올라오는 울음을 멈춰야 했던 이유는 뭘까.

이날은 그의 정책발표보다는 상대 후보의 ‘청와대 근무이력’ 검증주장에 관해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듯했다.

“지난 두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모두 해명했으며, 5·18 3단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두환의 비서였다면 3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겠으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국정과제를 맡기셨겠느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잊지 못했다. 솔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공격한데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에 가슴이 북받쳐 올랐던 것일까.

가까스로 말을 이어 가던 그는 “저는 5·18 당시 광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판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5·18 당시 광주에 있지 못한 수많은 호남인들이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한 뒤 허공을 바라봤다.

‘전라도’,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받았던 냉대. 80년 5월의 아픔을 광주에서 함께 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함께 떠올랐는지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조기철 기자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나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아르긴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지), 셀레늄(Se)
- 두뇌 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주 문 제 | 전국어디서나 1577-0426 소싱 트레이스트 www.edaymail.com | 문 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양소 (02)692-4907 ● 제주영양소 (03)699-3782 ● 남부영양소 (03)691-6535 ● 강원영양소 (03)694-4949 ● 서부영양소 (03)694-2395 ● 인천영양소 (03)695-4085 ● 광주영양소 (03)694-8801
 ● 충청영양소 (04)2923-8801 ● 전북영양소 (06)274-2328 ● 전남영양소 (06)264-5501 ● 경북영양소 (03)269-3445 ● 경남영양소 (05)2229-8828 ● 대구영양소 (05)4791-6381 ● 부산영양소 (05)104-8801